

문단구조와 논리

김광웅*

- I. 서론
- II. 개념구성의 성질에 의한 문장구조
- III. 개념 상호관계에 의한 문장구조
- IV. 판단형태에 의한 문장구조
- V. 결론

I. 서론

개념은 직관에 대립되는 것으로 모든 개념은 한 대상을 지시하고 대상은 ① 직접 볼 수 있는 대상 ② 직접 볼 수 없는 대상 ③ 두께, 현명 등과 같이 성질을 표시하는 대상 ④ 중성자, 원자 등의 자연철학적 이론의 대상 ⑤ 원, 선, 직경 같은 수학적 대상 등 각종이 있다. 또 모든 개념 언어적 표현을 명사

* 국어국문학과 교수

(term)라 한다. 그러나 term은 문법에서의 noun이나 한 단어에 한정되지 않고 <내년 2월에 졸업할 학생> <백두산 꼭대기에 펄펄 날린 태극기> <작년도 전국 학생 경기 대회에서 우승한 단체>와 같이 여러 품사의 결합으로 된 하나의 의미상도 포함된다.

그러면 이 같은 개념을 문장구성과 문장분석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는 문장론의 중요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문보다 고차적인 통일체로서의 문장에 대해서는 언어학적 연구의 손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언어학이 분석적 연구에 편중되어 종합적 관찰을 되외시한 태도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보다 고차적인 통일체로서의 문장연구가 국어학의 새로운 연구분야로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문장구성과 개념의 상관 관계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글쓴이는 처음 무엇을 쓸 것인가를 결정한다. <무엇을>이라는 것은 글쓴이의 소재, 제재, 혹은 주제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글쓴이는 자연, 인생, 신 등 판념에 대상이나 물질적 대상 즉 개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심과제의 판단 즉 참됨, 거짓됨, 고음, 추함, 착함, 악함, 저속함, 쓸모 있음, 쓸모 없음 등의 가치판단이나 사실 판단을 내려 문장을 구성한다. 그러므로 문장에서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개념의 판단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전개 될 것이다.

II. 개념구성의 성질에 의한 문장구조 1)

1) 이 글의 '개념'과 '판단'에 관한 이론은 최재희 '논리학 원론'(일신사, 1976)과 박종홍 '일반논리학'(박영사, 1970)에 바탕을 둔.

이 글의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다.

최재희 : 논리학원론, 일신사, 1976.

박종홍 : 일반논리학, 박영사, 1970.

이용백 외 : 국어교육론, 일조각, 1978.

최현배 : 우리말본, 정음사, 1965.

1. 단독 개념, 일반 개념, 집합 개념

내포와 외연의 다소에 의한 분류로서 단독개념은 개념이 단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세종대왕> <신라의 구도(舊都)> <지금 내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와 같이 외연이 하나인 것을 말하고 일반개념은 사람, 꽃, 금속, 나무와 같은 개념으로 경험이 많아져서 다수한 대상들을 비교하여 일정한 공통된 속성을 가진 사물을 표시하는 개념으로, 외연이 넓은 개념을 말한다. 집합개념은 학급, 군대, 가족, 청중, 교수회와 같이 많은 대상이 집합해서 하나의 전체가 된 것을 지시하는 개념을 말한다.

2. 적극개념, 소극개념, 결성개념

판단의 二代 요소는 $s=p$ 과 $s\neq p$ 이다. 이것은 어떤 개념을 긍정으로 보든가 부정으로 보든가이다. 아름다운 꽃, 유기체, 밝음, 현명과 같이 일정한 개념을 긍정적으로 보는 개념을 적극개념(positive concept)이라 하고 아름답지 않은 꽃, 무기체, 어두움, 불쾌, 고난 등 어떤 내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소극개념(negative concept)이라 하고 소경, 병어리, 배고픔, 죽음 등과 같이 본래 가진 성질을 결하고 있는 개념 즉 외양은 적극적이면서 기실은 소극적 개념을 결성개념(privative concept)이라 한다. 그러므로 문장, 문을 분석할 때 제재를 소극판단 할 때와 적극판단 할 때의 문맥 흐름은 아주 판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1) 흔히 말하기를, 한국 사람은 대체로 현세적, 실제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를 즐기려 하며, 중시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옛날 사람이 본디 그러했을 것이며 근세에 와서 거기에다 유교의 영향도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倉澤榮吉, 渡部壽賀雄, 文章論의 讀解指導, 日本明治圖書, 1964.

Cleanth Brooks & Robert penn Warren : Modern Rhetoric, Harcourt, Brace and Co., Inc., 1970.

(2) 그러나, 가령 같은 불교에 있어서도 삼국시대의 유물로서 오히려 미륵불상의 절묘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거나, 저 궁예가 미륵불의 현신(現身)이라고 자칭하였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미래불인 미륵을 숭상함은 현세적, 실제적인 것을 단순하게 그것만으로써 생각하려는 사상적 태도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사상 속에는 미래와의 관련에 있어서 현재를 파악하려는 태도도 있었던 것처럼 짐작된다.

이 글은 소극개념과 적극개념을 혼용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한 글이다. (1)에서는 소극개념인 **현세적, 실제적**에 주안을 두어 <한국사람은 현세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주장하여 그 예증으로 옛날 사람과 유교의 영향으로 그 근거를 삼았으나 (2)에서는 반론을 펴서 <미래와의 관련에서 현재 파악> 즉 <미래지향적>이란 적극개념으로 대조적개념을 사용하여 논지를 전개시키고 있다. 박종홍씨의 글은 논지가 정연한 글의 대표적인 문장으로 「한국의 사상」 또한 똑같은 기법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소극적인 온사의 나라, 애상의 아름다움> 등 소극개념으로 일면적 고찰을 한 다음에 <적극적 건설의욕> 등과 같은 적극개념으로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 한국문학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온근과 끈기'식으로 자족하는 석학이 있다. 도남 조윤제 박사의 탁견인즉 그러하다. 패배의 역사, 피해자의 생활을 합리화하는 창조 이전의 수치스런 언어의 도박이 아닌지 모른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온근하고 끈기있는 문학예술 내지는 생활을 형성해 왔음이 사실일까? 여백과 여운을 지닌 '선의 예술'이 한국 문화의 총칭임에 그치지 않고 동양문화의 그것이라면 혹 모른다. 그러므로 '온근과 끈기'가 동양문화의 막연한 특성이라면 용납될 지 모른다.

(2) 한국의 특성은 그 문화 예술에 있어서나 문학에 있어서 훨씬 치열하다. 분명 '온근과 끈기'이상의 역동성이 있는 줄 안다. 하다 못해 판소리 가락이나 야사의 줄거리 또는 박지원의 작품을 읽어 보면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근과 끈기'쯤 불태우고도 남는 저력이 있다는 것을 뜻

있는 사람이면 자각할 것이다. '점잔스러움'의 허위성을 깨끗이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발전적 전통의 발견을 위해서라도 '은근과 끈기' 따위의 문학적 미신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는 필연성은 거듭 강조되어야 할 일이다.

(임중빈 「상황 극복의 미학을」)

(1)에서 필자는 <은근과 끈기>를 소극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러므로 패배의 역사, 피해자의 생활 등의 소극개념으로 나타나고 여백, 여운, 선의 예술 등이 쓰여서 필자의 논지에 일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2)에서 한국 문학의 특성을 적극개념인 <역동성>에 두므로 <발전적 전통, 허위성의 극복> 등 적극적인 개념을 펴서 한국 문학의 특성을 적극개념으로 논하고 있다.

3. 구체개념과 추상개념

개, 인간, 백두산과 같이 유형한 것을 재료로 해서 생긴 것 즉 시공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개념을 구체개념이라 하면, 차이, 정의, 선악, 교활, 인간성, 용감, 아름다움과 같이 유형한 사물의 관계, 성질, 상태 즉 무형한 것을 지시하는 것을 추상개념이라 한다. 개념의 발달은 유형화한 것에서부터 무형화한 것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발달해 왔다.

문장 및 문단의 표현은 구체에서 추상으로 또는 추상에서 구체로 전개되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다. 문장의 기본구성인 서→본→결의 관계도 추상 구체의 관계이며, 문단의 일반적 전개도 이 형태를 거의 지니고 있다.

Ⅲ. 개념 상호관계에 의한 문장구조

1. 일치관계

두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서로 동일한 것을 동일개념(identical concept)이라 하고 외연이 같으나 내포가 다른 두 개념은 동의(동가)개념이라 한다. 개

념과의 관계에 의한 분석은 문단과 문단과의 관계, 문과 문과의 관계가 상호 어떻게 전개되며, 그 관계가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응용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동일관계에 있는 두 개념은 한 주제나 중심과제를 표현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문단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 20세기도 이전 절반 이상이 가버렸다. 그 동안 현대문학의 영토는 넓어지고 또 전후의 풍토도 많이 변했다. 같은 현대문학이라 하더라도 전반기와 후반기의 작품은 작품세계나 수법 들의 양상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현대문학의 모습을 몇 가지 더듬어 보는데 있어서도 우선 그것을 전후 두 개의 범주로 크게 나누어 놓고, 거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모습을 들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 두 범주의 경계선을 편의상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중간에 그어 1920년 무렵을 전후한 수십 년 동안의 현대문학과 1940년 무렵을 전후한 오늘날의 수십 년 동안의 현대문학을 갈라 놓고 두 개의 문학 사이의 변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백철 「현대문학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1)단락의 중심과제도 현대문학이며 (2)단락도 동일한 개념이다. (2)에서는 그 개념을 구체화하여 1920년을 전후한 현대문학과 1940년을 전후한 현대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1)과 (2)는 일치관계로서 현대문학의 특징을 살펴자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2. 병립관계

문, 단락의 연결구조에서 대등 병렬의 관계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개념과 개념과의 관계가 병위적(co-ordinate)존재인 것이다. 병위관계에 있는 개념을 보자

(a) 선언개념과 교착개념

동물과 식물, 미국인과 서구인과 같이 동일한 류에 속하는 두 종이 외연상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겹치지 않은 것을 선언개념이라 하고 군인과 용사, 남성과 노인, 교사와 학자와 같이 두 종의 외연이 일부를 공통적으로 가져서 교차하는 것은 교차개념이라 한다.

(b) 상관계념과 괴리개념

한 개념의 내포가 다른 개념의 내포를 필연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상관계념이라 한다. 가령,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부인, 선생과 제자 등. 괴리개념(disparate concept)은 하늘과 소금, 도덕과 황색, 연필과 돌과 같이 두 개념이 공통성을 전혀 갖지 못한 것을 말한다.

(c) 반대개념과 모순개념

내포의 차이가 극심해서 양 극단을 표시하되 중간에 제삼자를 용납하는 두 개념을 반대개념이라 한다. 가령 미와 추, 현명과 우둔, 백색과 흑색 등이다. 모순개념은 삶과 죽음, 동과 정, 유와 무, 현명과 비현명처럼 중간에 제삼자를 용납하지 않는 개념이다.

(A) 작자의 인생관은 첫째로 참되어야 하며, 둘째로 도덕적이어야 한다.

(B) 이 '참되다'는 점에 있어서, 소설이 가지는 '참'은 반드시 '있었던 일' 또는 '있는 일'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요구되는 진리는 반드시 과학적 진리라기보다 차라리 예술적 '진리'이다. (C) 소설은 도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소설의 목적이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요, 소설가가 설교자는 아니지만, 고금을 통하여 위대한 작품은 모두 위대한 도덕적 사상을 지닌다. 소설이 인간의 진실한 생활의 다루는 것이라면, 그 인간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소설은 개인의 생활을 정화시키고 사회가 향상 발전하는데 이바지해야 될 것이다.

소설이 개인을 타락시키며 사회를 타락시키는 해독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단락 (A)에 이 글의 주제가 요약되어 있다. (B)와 (C)는 병위적 관계로서 소설에서 작가의 인생관을 진선미를 추구하려 하는 것으로 (B)와 (C)의 중심

과제가 서로 상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관개념이다. (B)와 (C)는 (A)를 구체화시켜 상술하는 서술양식이며 추상과 구체의 관계로도 볼 수 있다.

3. 의존관계(종속관계)

논리적 구성이라 할 때 의존관계를 말한다. 인과적 구성일 때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a) 제약개념과 피제약개념

죄와 벌, 좋은 성적과 합격, 시간과 연속처럼 서로 관계되는 두 개념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제약개념, 다른 쪽 개념을 피 제약개념이라 한다.

(b)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포섭관계에 있는 두 개념 중 다른 개념을 포섭하는 유개념, 포섭되는 종개념을 말하며 유개념과 종개념을 그 포섭의 상하관계로 보아 상위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주종관계를 이룬다. 예를 들면 생물→동물→인간→한국사람 →서울 사람, 다각형→삼각형→등변삼각형과 같다.

① 문학은 언어예술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있어서나 언어와의 관계는 중요 시해 왔지만 특히 현대문학, 그 중에서도 현대시에서 언어의 문제는 중요시 된다. ② 말하자면 시와 같은 짧은 형식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복잡한 의 식 또한 현대문명에 대한 복잡한 체험의 복합체를 표현하는 언어는, 그 용법 과 수준에 있어서 특별한 고심과 선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③ 단순한 서정이나 설명이 아니라 포괄적이며 암시적이라야 하기 때문에 현대시에서 비유법을 즐겨 쓰고, 비유법에서도 직유가 아니고 은유 즉 메타퍼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된 것이 현대시의 특징이라고 보아야겠다. ④ 그래서, 현대시가 난 해하다는 독자 여론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백철, 「현대문학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 글의 중심과제는 문학, 현대문학, 현대시 중 어디에 적합한 글일까? ①

문에서는 문학과 언어→ 현대문학과 언어→ 현대시와 언어로 상하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 ③ 문이 현대시와 언어의 관계를 부연하면서 ①문이 이 유를 밝혔으므로 이 글의 초점(Key word)은 현대시와 언어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IV. 판단형태에 의한 문장구조

판단은 어떤 대상에 관하여 어떤 사태를 주장하거나 반대로 부인하는 것이다. 즉 주어개념과 술어개념의 일치 불일치를 표시한다. 주개념은 사고하는 대상을 말하며 술어 개념(빈개념)은 주개념의 내용을 언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 대상 즉 개념으로 몇 가지의 명제를 표현할 수 있을까는 사고의 범주를 규정하여 판단의 형태를 규정할 것이며 빈개념의 형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주개념과 빈개념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의 유형을 표출할 수 있는가는 문장의 요점을 파악하는 데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어떤 대상(개념)을 가지고 어떤 명제로 나타내더라도 그 주제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Aristotle은 대상에 관한 진술의 형식을 10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 ① 실체(substance) : 그는 사람이다.
- ② 분량(quantity) : 그는 키가 5척이다.
- ③ 성질(quality) : 그는 유덕하고 인내심이 있다.
- ④ 관계(relation) : 그는 아버지며 교사며 시민이다.
- ⑤ 능동(action) : 그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 ⑥ 수동(passion or suffering) :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다.
- ⑦ 장소(place) : 그는 시중에 있다.
- ⑧ 시간(time) : 그는 지금도 존경받고 있다.
- ⑨ 상태(position) : 그는 지금 서서 있다.

⑩ 소유(habit) : 그는 옷을 입고 있다.

어떤 문단에서 주개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떻게 표현했느냐는 문맥을 파악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학문은 인생을 알고 싶어하는 지식이다."라고 한다면 학문을 대상으로 한 실체가 될 것이며 "그믐달은 원부와 같이 애절하다"가 주제라면 그믐달의 성질을 나타낸 표현 방법일 것이다.

2) Kant의 판단의 형식적 분류

Kant는 모든 개념을 다음의 12범주로 구별하였다.

- ① 양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의 주개념이 외연 전부에 관한 것인가 일부에 관한 것인가에 의해
 - a) 전칭판단 : 모든 $s=p$ 다.
 - b) 특칭판단 : 약간의 $s=p$ 다.
 - c) 단칭판단 : 이 $s=p$ 다.
- ② 질을 기준으로 주개념과 빈개념과의 일치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 a) 긍정판단 : $s=p$ 다.
 - b) 부정판단 : $s \neq p$ 다.
 - c) 무한판단 : s 는 非 p 다.
- ③ 관계란 주개념과 빈개념의 관계 즉 판단과 판단과의 관계에 의해 분류하여
 - a) 정언(定言)판단 : 아무런 조건 없이 주개념과 빈개념의 일치, 불일치 관계를 성립시키는 판단. 예) 종이는 귀중한 것이다.
 - b) 가언(假言)판단 : 어떤 조건 아래서 성립되는 판단. 예) 종이가 젖으면 찢어진다.
 - c) 선언(選言)판단 : 한 주개념에 대하여 빈개념이 다수로서 그 중의 어느 것을 선정해야 하는 판단. 예) 모든 물체는 고체나 기체나 액체다.
- ④ 양상이라 함은 판단의 확실성 즉 타당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 a) 개연(蓋然)판단 : 판단 성립의 도와 확실의 도가 개연적인 것. 예) 그가 당선될 것이다. s는 p일 것이다.
- b) 확연(確然)판단 : 판단의 성립이 확실한 것. 예) 그가 당선한다. s는 p다.
- c) 필연(必然)판단 : 판단 성립의 확실도가 절대적인 것. 예) 그가 반드시 당선된다. s는 반드시 p다.

선언판단에는 “그는 죽거나 살거나 어느 것이다”와 같이 주어가 동일한 것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이다.”처럼 주어가 동일하지 않은 두 유형이 있으며 선언판단의 선언지(選言肢)들은 병립관계로서 반대개념, 모순개념 등의 경우가 많다.

가언판단의 종류를 보면 주어가 동일한 것과 다른 것이 있으며 “사람이 성실하게 살면, 그는 항상 행운을 개척한다.”와 같이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가 필연적인 문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방탕하면, 그는 때때로 장수하지 못한다.”와 같이 필연적이 아니고 예외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가언판단의 내용을 보면

- ①시간관계 : 봄이 오면, 제비가 날아온다.
- ②공간관계 : 땅이 사철 얼음으로 덮이면, 그 땅에는 아무 식물도 성장하지 못한다.
- ③인과관계 : 사람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둔다.
- ④목적관계 : 가을에 거두려면, 봄에 씨를 뿌려야 한다.
- ⑤수학적 관계 : 삼각형이 이등변이면, 그 삼각형은 등변에 대한 양각이 같다. 예를 들어 살피면

애(噫)라. 구래(舊來)의 억울을 선창(宣暢)하려 하면 시하(時下)의 고통을 파탈하려 하면, 장래의 험위(脅威)를 삼제(芟除)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의(廉義)의 압축소잔(壓縮銷殘)을 흥분신장(興奮伸張)하려 하면, 각개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遂)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苦恥)적 재산을 유여(遺與)치 안이하려 하면, 자자손손의 영구완전한 경복을 도영(導迎)하려 하면, 최대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케 함이니, 이천만 각개가 인(人)마다

방촌(方寸)의 인(刃)을 회(懷)하고 인류통성(人類通性)가 시대양심이 정의의 군(軍)과 인도의 간과(干戈)로써 호원(護援)하는 금일, 오인(吾人)은 진(進)하야 취(取)하매 하강(何強)을 좌(挫)치 못하랴. 퇴(退)하야 작(作)하매 하지(何志)를 전(展)치 못하랴.

이 문장은 가언 판단이 주류를 이룬 글로서 <~하려 하면>이 여섯 번 나타나고, <~함이니>로 종속절이 끝나 주절의 중심은 “최대급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실하게 함이니”로서 뒷글은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가언판단 중 목적관계를 보여준 글이다.

3. Wunt의 판단 분류

① 주개념의 형식에 의한 분류

주개념이 불확정인 것을 불확정판단이라 하고 “이 책이 두껍다.”와 같이 주개념이 단독개념일 때 단칭판단 “소,노루,염소,돼지는 네굽 짐승이다.”처럼 주개념이 다수, 병렬적일 때 다수판단이라 한다.

② 빈개념(賓概念)의 성질에 의한 분류

“그는 강을 건넜다.” “도둑이 달아났다.”와 같이 빈개념이 상태나 사상을 표시하는 것을 설화적 판단, “저 산이 높다.” “이 꽃이 아름답다.”처럼 빈개념이 사물의 성질을 표시한 것을 기술적(技術的)판단,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다.” “이 책은 소설이다.”처럼 빈개념이 주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설명적 판단이라 한다.

③ 주개념 빈개념의 관계에 의한 분류

“Aristotle은 논리학의 건설자다.” “수소는 원자량의 최소의 단위다.”처럼 동일 개념, 동가개념 사이에는 모두 동일판단이 나타난다. “태양은 하나의 항성이다.” “쇠는 금속이다.” “어떤 평행사변형은 직각사변형이다.”처럼 주개념과 빈개념과의 관계가 상하관계일 때 상위 및 하위판단, 빈개념이 선언적일 때 병위적 판단(선언판단), 가언적 판단인 의존적 판단으로 분류된다.

④ 타당형식에 의한 분류

이것은 부정판단, 개연판단, 필연판단으로 구분된다.(앞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음)

위의 이론에 의하여 구성된 문장을 분석해 보자.

나무는 덕을 지녔다.①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동성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厚薄)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 친구의 처지에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하다.②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작이는 한 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열고 돌 우는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긴다.③

나무에 아주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있고 다정한 친구가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쟁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올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대고 어떤 때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는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 다리에 상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역시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 믿고 와 등지를 틀고 지켰을 때 찾아와 쉬며 꾸밈하는 것이 귀엽다. 그리고 가다 흥겨워 노래할 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잘 가릴 줄 안다. 그러나 좋은 친구라 하여 달만을 반기고 믿지 못한 친구라 하여 새

와 바람을 물리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달을 유달리 후대하고 새와 바람을 박대하는 일도 없다. 달은 달대로 새는 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다같이 친구로 대한다. 그리고 친구가 오면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지 않는다고 하여 불행해 하는 법이 없다. ④

같은 나무, 이웃 나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두말 할 것이 없다. 나무는 서로 속속들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정하고 공감한다. 서로 마주보기만 해도 기쁘고 인생을 이웃하고 살아도 싫증나지 않는 친구다. ⑤

그러나 나무는 친구끼리 서로 즐긴다느니보다는 제 각기 하늘이 준 힘을 다하여 널리 가지를 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더 힘을 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목도하는 것으로 일삼는다. 그러길래 나무는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있다. 그리고 온갖 나무잎이 우거진 숲을 찾는 사람이 거룩한 전당 들어선 것처럼 임숙하고 경허한 마음으로 자연 옷깃을 여미고 우렁찬 찬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⑥

나무에 하나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명을 다한 뒤에 하늘 뜻대로 다시 흙과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가다 장난삼아 칼로 제 이 몸을 새겨보고 흔히는 자기 소용 닿는 대로 가지를 쳐가고 송두리째 베여 가곤 한다. 나무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는다. 새긴 이름은 도로 그들의 원대로 키워지고, 베어간 재목이 혹 자길 해칠 도끼자루가 되고 톱 손잡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는 법이 없다. ⑦

나무는 훌륭한 견인주의자(堅忍主義者)요, 고독의 철인이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현인이다. ⑧

불교의 소위 윤회설이 참말이라면 나는 죽어서 나무가 되고 싶다. “무슨 나무가 될까” 이미 나무를 뜻하였으니 진달래가 될까 소나무가 될까는 가리지 않으려다. ⑨

(이양하 「나무」)

이 글은 9개의 형식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의 주지인 ①문의 판단 형식은 <나무>라는 일반개념을 소재로 하여 “나무는 덕을 지녔다.”라는 성

질(quality)를 나타낸 글이다. 이 주지는 정언판단으로 그 타당성을 확실히 인정한 확언판단이다.

각 단락의 중심내용을 개념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분석하면 ②의 빈개념인 <분수에 만족한다> ③의 <고독을 즐김> ④의 <친구와 즐김> ⑤는 ④와 동의개념으로 일치관계를 나타내며 ⑥은 <감사하고 축도함> ⑦은 <천명을 따름>으로 ②/③/④/-⑤/⑥/⑦단락은 병위적 관계로서 선언개념의 관계에 있다. ⑧은 ②-⑦의 요약이며 ①은 추상개념 <덕을 지님>을 ②-⑦에서 구체화시켜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①은 피제약개념이며 ②-⑦은 제약개념이다.

V. 결론

문장은 어떤 개념을 어떤 판단에 의해 형성화하고 전개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은 전체적인 구조와 부분적인 구조와 개념에 의해 그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본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논리적 개념과 판단'의 이론만이 문장 구성과 분석의 절대적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 문장론적 접근방법 즉 문장의 서술양식과 문장의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나, '개념과 판단'의 이론이 그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 있음을 본론의 분석과정을 통해서 보았다.

개념의 분류에 의한 여러가지 개념의 성격은 문장의 방향을 제시하며 개념의 상호관계는 문과 문 문단과 문단의 연결 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므로 문장의 전개와 구성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또 판단의 형태는 어떤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므로 글쓴이가 문장 구상 절차에서 제일 먼저 설정해야 할 중심과제나 주제의 형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을 통해 판단의 형태를 추론하는데 큰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모든 문단은 하나의 사고(思考)의 단위이므로 그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판단의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판단의 형태는 문단에서도 그 주제 파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